■ 민족문화연구 제86호(2020.02.28),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273-291.
http://doi.org/10.17948/kcs.2020..86.273

죄악과의 전쟁*
—초기 한국 구세군의 금주 담론을 중심으로—

이유나(李釉娜)**

목 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한국 초기 구세군의 금주 담론을『구세신문』등의 내용을 분석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한국 개신교 절제운동의 흐름 속에서 구세군을 파악하는 선행연구들의 경향과 달리, 구세군사를 중심으로 그 논의를 전개하고자 하였다. 우선 구세군 출현 당시 영국의 상황을 살피고 금주가 왜 주요한 규율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후 한국에 정착한 구세군의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1909년 발행된『구세신문』금주호의 특징을 밝혔다. 금주를 상징하는 명확한 삽화와 주요한 성경구절 그리고 금주가 등을 통해서 구세군은 스스로의 종교성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또한 이는 당시 개신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4S1A5B5A02016414).
** 한동대 글로벌 리더학부 강사.

교 금주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구세군, 금주, 구세신문, 절제, 규범, 군대, 금연.

1. 서론

한국 구세군은 매년 3월을 절제의 달로 정하고 '건전생활 캠페인'을 열고 있다.[1] 금주와 금연을 강조하는 이 캠페인은 흥미로운 이력을 가지고 있다. 1908년 이 땅에 출현한 구세군은 이듬해부터 구세신문을 발행했고 꾸준히 금주와 금연에 관한 논의를 이어왔다. 특히 1921년 3월부터 〈금주호〉라는 특집호를 발행하면서 이후 적극적인 담론을 펼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관심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을 먹는가 혹은 먹지 않는가의 문제는 종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종교는 삶과 유리된 것이 아니며 결국 실천을 통해 구성되기 때문이다. 특히 술은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꽤 중요한 주제이다. 제자들과 함께 한 마지막 저녁 식사에서 예수는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눴으며,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로 인해서 신학과 실천의 다양성이 공존하고 있다.[2] 그렇다면 구세군과 술을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까. 군대식 조직 체계의 규율인 금주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때 과연 어떤 특징들이 나타날까. 우리는 구세군의 출현 과정과 한국에 정착한 후 금주 담론을 살펴보면서 한국 구세군의 정체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구세군의 금주운동은 개신교의 절제운동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

---

1) 한국구세군은 매년 6월 8일을 Alcohol Free day로 정하고 있으며, 국제적 알코올 프리데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알코올 프리데이는 구세군이 활동하는 131개국에서 동시에 전개하는 캠페인이다.

2) 그래이엄 하비(Graham Harvey)는 종교를 식습관(foodway)과 연관하여 연구할 것을 제안하며 더 나아가서 '음식으로서의 종교'를 상정할 것을 주장한다. 결국 종교가 교리나 믿음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삶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Graham Harvey, "Respectfully eating or not eating : Putting food at the centre of Religious Studies", *Scripta Instituti Donneriani Aboensis*, Vol.26, 2015, pp.32-46. 그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이 글에서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서 술과 관련된 구세군의 구체적인 태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에서 주로 확인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축적된 연구들에서는 장로교와 감리교 중심의 운동을 주요하게 다루면서 구세군을 부분적으로 다루는 공통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 때문에 구세군이 가진 특징을 파악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3] 구세군의 금주운동은 1920-30년대에 등장했던 개신교 금주운동의 맥락에서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출현한 점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경향을 파악하고 구세군사의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구세군은 총독부의 요구에 따라서 1940년 이름을 구세단으로 바꾸고 국제 구세군과의 관계를 단절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그 이전 시기에 발행된 『구세신문』의 금주 관련 담론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1) 새로운 종교 공동체의 출현

한국 구세군에 관해 논의하기 전에 우선 구세군의 출현에 관해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구세군은 1865년 산업화 시기 빈부의 격차가 극명해진 영국 사회에서 기독교 부흥 조합(the Christian Revival Association)이라는 이름을 가진 단체로 출발했다. 당시 런던 동부의 빈민가에는 기독교의 자선(Charity)을 목표로 하는 매우 많은 단체들이 있었고 그중에서도 구세군은 단연 두각을 나타냈다.[4] 윌리엄 부스(William Booth)와 그의 아내인 캐서린 부스(Catherine M. Booth)가 주축이 되어 설립한 구세군은 빅토리아 시대의 군대 복장과 군대 조직 체계 그리고 깃발을 들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행진하는 가로전도를 특징으

3) 대표적인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백종구, 「한국 개신교 절제운동의 기원과 전개—금주운동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27집, 한국기독교학회, 2003; 장금현,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 연구: 1884-1939년을 중심으로」, 서울신학대 박사학위논문, 2004; 윤은순, 「1920・1930년대 한국기독교절제운동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2008; 양윤석, 「한국 구세군의 사회구원활동 및 신학: 일제 강점기를 중심으로」, 계명대 박사학위논문, 2016.

4) 구세군 설립 당시 런던 동부의 빈민가에는 자선(charity)를 주요한 성격으로 삼는 500개가 넘는 종교단체들이 활동했다고 알려진다.

로 하는, 가장 적극적인 기독교(Aggressive Christianity)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빅토리아 시기의 영국군을 모델로 한 구세군은 악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었는데 특히 관심을 기울인 주제가 술이었다.

음주는 당시 영국 사회가 당면한 주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다. 비교적 음주에 관대했던 영국 사회에서 술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중요한 이유는 급격한 산업화에서 기인한다. 마땅한 여가를 즐길 수 없던 빈민가와 공장가에서 값싼 증류주는 노동자들의 위안거리가 되었으나 과도한 음주가 각종 범죄로 이어지면서 음주는 서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었다. 과도한 음주는 자본가들에게 노동력과 잉여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없는 장애물이었으며 노동자들에게 실업의 위험을 알리는 검은 그림자이기도 했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 하에서 금주운동이 일어난다.

1820년대부터 등장한 영국의 금주운동은 주도 세력의 변화하면서 그 성격도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초기에는 주로 중산층이 노동자 계급을 계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전개되었다. 이때 중산층은 근면과 성실 등을 주요한 사회적인 가치로 보면서 이를 위해서 금주가 꼭 필요한 요소임을 강조했다. 이후 주도권이 노동 계급으로 넘어가면서 스스로의 자립을 위한 요소로서 금주는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특히 조직적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주장했던 차티스트 운동(Chartism)이 등장하면서 더 큰 동력을 얻게 되었다.[5)]

그런데 이러한 금주운동은 당시 종교적 분위기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었다. 특히 존 웨슬리(John Wesley)를 중심으로 전개된 복음주의 정신은 기본적이고 종교적인 것에서 출발하여 개인적·사회적 도덕에 영향을 미친 정신으로 일반화되면서 전 계층으로 확산되었다.[6)] 중산층이 주장한 '사회 계몽'과 노동자들 스스로의 '자립'은 그 주제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복음주의에서 싹튼 문화적 분위기를 공유한 결과물이었다. '주정뱅이는 공공의 적'이라는 웨슬리의 주장은 한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음주에 대해 당시

5) 송기호, 「19세기 영국의 금주운동과 해밀턴의 금주 시」, 『영어영문학』 제16권 2호, 미래영어영문학회, 2011, 2면.
6) 리처드 D. 앨틱, 『빅토리아 시대의 사람들과 사상』, 이미애 옮김, 아카넷, 2011, 262면.

영국 기독교가 공유한 일반적인 견해라고 보아도 결코 과언이 아니었다.[7] 감리교 신파(Methodist New Connexion)의 목사이기도 했으며, 이후 스스로를 웨슬리의 제자이며 계승자로 자처한 윌리엄 부스 또한 당시 복음주의적 분위기를 전적으로 공유했다.[8] 그가 창설한 구세군은 웨슬리의 감리교적 전통을 이어받았고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진 주요한 종교 단체 중 하나였기에 금주를 더 적극적인 실천의 주제로 삼게 된다.

이러한 배경과 더불어서 구세군 창시자들의 삶에서도 술은 주요한 주제였다. 특히 캐서린 부스의 삶에서 금주는 꽤 중요한 문제였다고 전해진다. 그녀의 아버지는 완전한 금주(teetotaler)를 실천했으나 이후 다시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녀의 가정은 아주 궁핍한 생활을 이어갔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경험은 그녀가 금주에 관해 강한 종교적 신념을 갖게 했으며 윌리엄 부스를 만나면서 더욱 강력한 종교적인 주제가 된다.[9] 캐서린 부스의 글 "Strong Drink versus Christianity"을 보면 음주는 사탄 왕국의 가장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것으로 의미화 된다.[10] 기독교인은 악마와의 성스러운 전투(holy warfare)에서 이겨서 '어두움'을 '빛'으로, '사탄'을 '신'으로 바꾸어야 할 의무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악의 세력을 무찔러야 한다.[11] 이러한 그녀의 생각은 구세군이 직접 알코올 중독자를 찾아서 가가호호 방문하는 적극적인 실천으로 이어졌고 남성의 음주 문제에 여성이 적극적인 해결사 역할을 하도록 이끌었다. 이후 선교회가 1878년에 구세군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절대금주'는 '절대원칙'이 되기에 이른다.[12]

---

7) Lilian Lewis Shinman, *Crusade against Drink in Victorian England*,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8, p.44.

8) 강돈구, 「구세군의 역사와 정체성」, 『종교연구』 제57집, 한국종교학회, 2009, 5면.

9) 윌리엄 부스는 절제(temperance)가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완전한 금욕(total abstinence)을 영혼 구원을 위한 주요한 수단 중 하나하고 보았다. 완전한 금욕이란 독성을 가진 술과 해로운 마약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Shinman, *Ibid.*, p.131.

10) Catherine Mumford Booth, *Papers in Practical Religion*, London: S. W. Patridge and Co., 1879, p.25; 「Victorian Women Writers Project」, Indiana University, http://purl.dlib.indiana.edu/iudl/vwwp/VAB7134(2019.12.31 검색).

11) *Ibid.*, p.27.

12) 강종권, 『초기 한국구세군 선교와 사역』, 구세군출판부, 2015, 133면. 1878년 구세군으로 변경했

이러한 금주의 원칙은 점차 군대식 조직의 규율과 상명하복이라는 권위를 근거로 신자들에게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이는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신학적 근거보다는, 조직을 위해 지켜야 할 규율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강조되었으며, 악의 무리와 싸우는 구세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상징이 되었다. 그렇다면 선교라는 새로운 만남의 상황에서 이러한 규율은 어떻게 설명되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새로운 양상들이 나타나는가. 금주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우선 한국의 정착 당시 구세군이 처했던 상황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낯선 종교에 대한 반응

구세군의 한국 진출은 1907년 윌리엄 부스 대장이 일본을 순방하는 중에 만나게 된 조선 유학생들의 권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윌리엄 부스는 중국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진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이듬해에 총사령관 로버트 호가드(Robert Hoggard, 이후 허가두)와 부인을 함께 파견했다.[13] 당시 한국에서는 1880년대에 진출한 미국 장로교와 감리교가 중심이 된 일련의 선교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었고, 다양한 교파의 원활한 선교를 위해서 선교지 분할 정책이 논의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구세군은 영국을 배경으로 한 군대 조직을 가진 단체였지만 당시 내한 선교사들은 꽤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구세군은 1880년부터 미국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미국 선교사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단체였

을 당시에는 병사들이 금주를 서약하는 방식이었으며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었다. 다만 1882년 소개된 캐서린 부스의 글인 "article of war"이후 완벽한 금주가 의무 사항이 되었다. Jack S. Blocker, Jr., David M. Fahey, and Ian R. Tyrell eds., "Salvation Army", *Alcohol and Temperance in Modern History: An International Encyclopedia*, SantaBarbara: ABC-CLIO, Inc, 2003, pp.542-543.

13) 허가두는 부인과 함께 1908년에서 1916년까지 한국에서 재임했다. 구세군은 윌리엄 부스와 캐서린 부스 부부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부부가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후 한국구세군은 1908년부터 1973년까지 미국인 사령관 한명을 제외하고 모두 영국인 사령관 체제 하에 조직을 구성했다. 김준철, 「구세군의 신학사상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 제30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8, 8면.

다. 또한 초기 내한 선교사들은 교파를 불문하고 당시 해외선교운동의 경건주의적인 흐름과 영미권의 사회개혁운동의 영향 하에 있었고 구세군 또한 이러한 분위기를 공유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14]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구세군은 기존 개신교 교파들과 별다른 갈등 없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다.

또한 풍습과 언어 연구를 할 여유 없이 바로 활동을 시작했던 구세군은 한국인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15] 한국인들은 낯선 종교 단체에 관해서 두려움이 아닌 강한 호감을 드러냈다. 이 세상을 구하는 군대(救世軍)라는 뜻을 가진 구세군 단체의 명칭부터 유니폼과 구세군기, 악기 연주와 함께 하는 거리 전도 등은 큰 호기심으로 다가왔고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며 신문 매체들은 구세군의 소식을 상세하게 다뤘다.[16] 구세군에 대한 호기심은 당시 한국인들의 반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의 침입에서 한국을 구해주러 왔기 때문에 무기와 군복 그리고 월급을 지급한다는 소문들이 있었고, 실제로 강제 해산된 군대의 병사들이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17] 또한 구세군이 영국이 아니라 당시 많은 선교사들이 내한했던 미국에서 파견한 군대라고 오해하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다.[18] 구세군이 진출한 1908년이 사회적으로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직후이자 종교적으로 대부흥운동의 열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때였기에 한국인들은 구세군에게 종교적인 역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다른 역할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3) 술과 담배—죄악의 동반자

구세군은 한국 진출 이듬해인 1909년부터 『구세신문』을 발행했고 이를

14) 류대영, 『한국 기독교의 역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8, 228면.
15) "Editorial", *The Korea Mission Field,* Vol.4, no.10, 1908.10.
16) 구세군(Salvation Army)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군대식 유니폼에 관한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며, 빅토리아 시대 군대 복장을 모델로 한 유니폼을 착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선교지에서는 해당 선교지의 군대 복장을 모델로 했으며 한국에 진출할 당시에는 대한제국 군대 복장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국제구세군에는 각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유니폼들을 확인할 수 있다.
17) 장형일, 『한국구세군사』, 구세군대한본영, 1975, 36면.
18) 강종권, 앞의 책, 56면.

통해서 주요한 사안들을 제시했다.[19] 창간호의 첫 페이지는 총사령관 허가두의 글인 "회개인에게 하는 규칙"이었다. 그는 구세군의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주일을 잘 지키는 것과 술 먹지 않는 것 그리고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20] 선교의 상황에서 금주는 입교자가 되기 위한 규칙이자 입교 후에도 지켜야 하는 중요한 규범으로 명시된 것이다.[21] 그런데 이미 한국에 진출한 개신교는 여러 관습들을 사회적인 악습으로 규정했고, 특히 신자가 되기 위해서 혹은 신자가 된 후에도 지켜야 할 것으로 '금주'를 주요한 주제로 삼고 있었다. 개신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금주해야 했으며 술장사를 하는 사람은 이를 그만두어야 하는 등 꽤 엄격한 규범이 작동했다.[22] 이러한 배경 하에 제시된 구세군의 금주 규율은 한국인들에게 그리 낯설지 않은 것이었다.[23]

『구세신문』에는 구세군은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와 더불어 군대의 조직이 무엇인지에 관해 자세히 다루었다.

> 志士: 군대라 함은 무슨 뜻이옵니까
> 士官: 군대라 함은 진정한 육군과 같이 굳세게 단합하여 남녀가 병진함이니 견고히 인도하는 법과 단체로 행하는 동작의 교훈이 있어 자기의 상관이나 혹 인도자의 지휘대로 행하여 사업을 이루는대로 나아감으로 군대라 함이외다.[24]

---

19) 구세군은 1879년 런던에서 The War Cry를 발행했고, 이후 진출한 선교지에서 정착 초기부터 자국어 신문을 만들었다. 『구세신문(Official Gazette of the Salvation Army in Korea)』은 1909년 7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1941년 12월까지 매월 1회 발행된 신문이다. 「구세신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76641(2019.12.31 검색).

20) 「회개인에게 하는 규칙」, 『구세신문』, 1909.7.

21) 신자의 정치 관여 금지를 명확히 한 것은 구세군의 지향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허가두는 입국 후 통감부 총독인 이토 히로부미와의 면담에서 구세군의 사회사업에 정치적인 목적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강종권, 앞의 책, 37면.

22) G. H. Jones, 「교회법에도 술먹지 못할 것이 분명함」, 『대한그리스도인회보』, 1900.3.7.

23) 주일을 지키는 것 또한 기존 개신교 교파들의 주요한 규범이었다. 한편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적인 규범으로 제시한 것은 구세군의 독특한 특징이다. 당시 정치 개입 금지는 기존 개신교 교파들도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규정이었으나, 구세군은 창립 초기부터 이를 주요한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24) 「구세군문답」, 『구세신문』, 1913.5. 지사(志士)와 사관(士官)의 문답에서는 구세군의 주요한 지침들을 확인할 수 있다.

구세군은 군대 조직의 외형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엄격하게 정해진 내부의 규율이 있고, 상명하복의 원칙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특히『구세신문』은 발간 초기에는 대장 윌리엄 부스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소개하면서 규율을 설명하고 신자들을 독려했다. 구세군의 조직 체계에서 윌리엄 부스는 그 정점에 있고 그의 명령은 곧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 구세군 규칙이라 하는 책이 있으니 이는 우리 대장 윌리엄 부스씨가 이 세상 인류에 관한 바 모든 방해로운 것을 설명하여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을 나타내며 (…) 그 중에 계금(戒禁)이라 하는 문제가 있으니 이는 실로 사람에게 대하여 조금도 이로움이 되지 아니하고 해로움만 되는 것을 금한다는 뜻이니 대개 사람이 마시고 취하는 술을 먹는 것과 이 세상 어느 나라나 어느 지방에서든지 다 인정하여 말하기를 이는 오직 악의 근원이라 (…) 술은 범사에 낭패되는 일이며 영원토록 지옥 불에 떨어지는데 이르는 것으로 술 마심을 끊어버려야 한다.[25]

금주의 근거는 음주가 여러모로 해롭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대장 윌리엄 부스가 중심이 되어 정한 공동체의 엄격한 규율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사가 되고자 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등장하면서 금주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방시찰을 하면서 사령관 허가두는 계속 신자의 금주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교우들 중에 술을 먹거나 술을 파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병사되게 하는 것이 좋지 못하고 규칙에 없는 일이니 주의하여 술을 먹는 사람이나 술파는 사람으로 하여금 병사의 책임을 맡기지 말라고 사관들에게 주의를 당부한다.[26] 이후에도『구세신문』에서 금주는 지속적으로 강조된 주제였고 그만큼 구세군 내부에서도 음주가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27]

한편 금주가 처음부터 회개인의 규칙으로 정해졌던 것과 달리 금연은 한국에 정착한 후 새롭게 등장한 주제로 보인다.[28]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은 담

25)「검주」,『구세신문』, 1911.12.
26)「정령허가두씨지방시찰」,『구세신문』, 1914.5.
27)「단번에 끊을 일」,『구세신문』, 1914.11.
28) 국제 구세군은 '담배에 대한 구세군 백서'를 발표하고 금연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76년에는

배를 게으름의 표상으로 보았는데, 당시 한국인들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대부분 담배 피우기를 즐겨했고 눈만 돌리면 그곳에는 으레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즐비했다고 전했다.[29] 선교사들은 담배 냄새가 개신교인들의 몸에서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너희는 성신의 전(展)'이라는 몸에 관한 성스러움의 메타포를 적극적으로 사용했고 금연을 강조했다.[30]

실제로 금연은 종교적인 사안일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특히 일본에게 빚진 국채를 석 달 동안 연초를 끊고 그 돈을 모아서 변상하자는 1907년 국채보상운동은 큰 호응을 얻었다.[31] 전국적인 운동 이후 담배에 관한 논의는 그 무익함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된다. 흡연은 해로운 습관일 뿐이며 이로 인해서 재물과 기운 그리고 세월을 소모하는 손해가 있다. 시간과 비용을 생각해도 무익한 일이며 이를 절약하면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득이 있다는 논의가 이루어진다.[32]

이렇듯 금연에 관한 개신교와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구세군도 담배의 해로움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 (…) 예수교인은 흡연하지 아니하여야 할 이유가 몇 가지 있으니 사람이 한번 시작을 할 것 같으면 그것이 큰 짐이 되어 담뱃대와 권연초에 노예가 될 수 있으며 부모가 담배를 먹을 것 같으면 물론 그 자식은 그것을 본으로 알고 또한 담배 먹을 것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도들을 볼지라도 담배 먹는 학도가 담배먹지 아니하는 학도와 같이 공부를 잘하지 못하며 그 연기와 담배 기운이 담배먹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붙어서 크게 방해가 되나니 누구시든지 병사 중에 단연하신 이가 있거든 구세신문 기자에게로 기별하시기를 무망함.[33]

인용문의 내용을 보면 흡연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가정과 학업 그리고 타인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라고 파악하고 있다. 흡연이 학업이

구세군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금연을 해야한다는 조항이 생겼다.

29) 이유나, 『한국 초기 기독교의 죄 이해: 1884-1910』, 한들출판사, 2007, 61면.
30) 같은 책, 76면.
31) 장지연, 「금연으로 국채를 보상하는 문제」, 『대한자강회월보』 제9호, 1907.3, 1-3면.
32) 지석영, 「두 가지를 끊고 한 가지를 좁히자는 논설」, 『대한자강회월보』 제9호, 1907.3, 5-9면.
33) 「병사단연」, 『구세신문』, 1910.9.

이롭지 않다는 것은 주로 미국의 사례를 들어서 이후에도 꽤 강조되는 사항이다.[34]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주장을 나열한다든가, 해로운 담배에 대한 역사를 기술하는 방식으로 절연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35] 금연은 구세군 병사가 되기 위해서 정해진 규칙은 아니었지만 이후 병사가 지켜야 할 중요한 사안이 되었으며, 이후 금주와 금연은 함께 논의되는 운명의 동반자가 되었다.[36]

4) 악의 세력을 물리치기—금주호의 특징

『구세신문』은 주로 구세군 내부 담론을 공유하는 역할을 주로 하면서 금주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금주 특집호를 발행하면서 대외적인 담론들을 펼치게 된다.[37] 구세군은 1921년 3월부터 구세신문 금주 특집호를 발행했고 발행 횟수가 늘어나면서 이후 10만부까지 발행 부수를 늘릴 만큼 점차 더 큰 호응을 얻었다.[38] 시장, 거리 그리고 술집에서 구세군이 직접 금주호를 팔기도 했고 개신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전해졌다.[39]

이러한 구세군의 금주호 발행은 금주에 관한 당시의 사회적・종교적 관심의 일환이었다. 일제는 술과 담배를 총독부 사업으로 전개하면서 주세(酒稅)와 연초세(燃草稅)를 징수했는데 부당하고 과한 세금 부과로 인해 한국인들의 반발이 매우 커진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개신교 또한 다양한 절제운

34) 「어리석은 사람은 담배 있는 것만 원망함」, 『구세신문』, 1914.10. 미국 대학교수는 건강상의 해로움을 논할 때도 등장한다. 「담배의 독은 인명을 살해함」, 『구세신문』, 1914.7.
35) 「연초는 인명을 살해하는 독의 뭉치」, 『구세신문』, 1914.11.
36) 「긔담」, 『구세신문』, 1913.10의 내용을 확인할 것.
37) 금주호의 필진으로 다른 교파의 인사들이 적지 않게 참여했다. 활천의 주간이었던 이명직, 기독신보 주간이었던 박연서, 절제회의 송상석과 이효덕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당시 금주호는 구세군만의 담론이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양한 필진의 여러 글들이 있지만 우리는 금주호에서 특히 구세군 신자들의 글에 주목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것이다.
38) 제1회 특집호는 2만 부를 발행했는데, 철도당국은 5천 부를 구입하여 직원에게 분배하고, 구세군 여학생은 거리에서 각 요일마다 2-300배부를 팔았다고 한다. 장형일, 앞의 책, 74면. 그러나 1919년부터 1923년까지 5년간의 『구세신문』과 금주호는 현재 유실된 상태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확보 가능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39) 장형일, 앞의 책, 80면.

동을 펼치기 시작했고 금주금연운동, 공창폐지운동, 생활 개선 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여론을 형성했다. 특히 1922년 세계기독교여자절제회에서 내한한 틴링(C.I.Tinling)이 순회강연을 하면서 이후 전국적으로 절제회가 조직되고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졌다.[40] 이러한 사회적・종교적인 배경은 구세군이 가장 적극적으로 금주운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41] 감리교와 장로교에서는 엡윗청년회, 면려회,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 조선기독교절제운동회 등의 각종 단체를 중심으로 금주운동이 펼쳐진 반면, 구세군은 이전부터 익숙한 방식을 이용한 전면적인 운동을 펼쳤다. 붉은 글씨로 된 '금주'라는 띠를 두른 남녀가 총동원되어 가로연설, 시위행렬, 가로신문팔이, 실내 연설 등의 맹렬한 활동을 전개했다.[42] 구세군의 이러한 활동은 이후 다른 개신교 단체들에게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개신교의 금주운동은 금주선전깃발과 악대를 이용한 가두시위를 주로 진행했다고 알려져 있다. 일례로 1933년 2월 9일의 금주선전에는 각 기관과 개신교계 학교 학생들 그리고 대규모의 악대들이 경성시내를 행진하면서 10만 개의 선전물을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43] 그렇다면 매년 3월 특집호 형식으로 발행되던 금주호는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우선, 삽화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기존 개신교계 신문이나 잡지는 글이 중심이었고, 삽화는 이전까지 흔히 볼 수 없었던 것이었다. 또한 당시 술에 관한 많은 담론들을 생산했던 『기독신보』 등에서도 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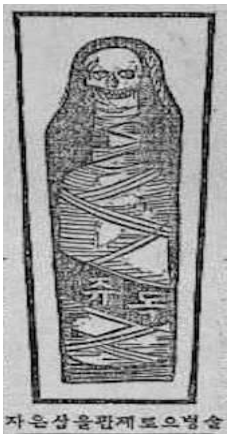
40) 당시 빅토리아 세계관을 공유하던 미국에서도 금주운동과 관련해서 가정의 수호자인 여성이 사회를 구원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인되며, 금주운동 단체의 설립 및 활동에서 적극적인 여성의 참여가 주요한 특징으로 드러난다. 세계기독교여성절제회에 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할 것. 루스 보딘 지음, 한동수 옮김, 『프란시스 윌라드』, JCR, 2008.

41) 「경성제이영금주선전대」, 『구세신문』, 1924.7. 구세군의 이러한 홍보 활동은 이후 다른 개신교 단체들의 선전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에서도 구세신문의 금주호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은순, 앞의 글, 93면.

42) 京城 慈善客, 「葉書通信-救世軍과 禁酒」, 『별건곤』 제28호, 1930.5.1. 글쓴이는 구세군의 적극적인 금주 활동을 전하면서 금주호를 무료로 배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맹렬한' 활동이라는 글쓴이의 평가는 당시 구세군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했는지를 짐작케 한다.

43) 배재・경신 등 개신교계 중학교와 이화전문학교 학생들이 대규모 참가했으며, 중앙전도관악대, 구세군악대, 배재, 연희전문, 경신악대 등이 함께 가두시위를 했다. 윤은순, 앞의 글, 81면.

를 찾아보긴 힘들었다. 『구세신문』에서는 새로 부임한 영국 사령관 부부의 사진 등을 종종 사용했던 적이 있으나, 유독 금주호에서 삽화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특히 금주호에는 술과 관련된 삽화들이 첫 번째 면을 장식하면서 전체 내용의 기조와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금주호가 특집호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미지의 각인 효과를 위해서 더 강한 이미지에 대한 선호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멸망과 사망을 상징하는 해골[44], 의인화된 술병의 창에 달린 사람들[45], 뱀, 괴물 등으로 상징된 술, 술잔에 빠진 사람을 바라보는 악마 등의 삽화는 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낸다.[46]



〈그림 1〉『구세신문』 1924.3.



〈그림 2〉『구세신문』 1926.3.

그런데 삽화에 조금 더 주목해보면 우리는 구세군이 가진 세계관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1925년 3월에 발행된 금주호의 첫 면(그림 3)에

44) 〈그림 1〉은 1924년 3월호에 실린 삽화이다. '술병으로 제 관을 삼은 자'라는 부제가 달려있다.
45) 〈그림 2〉는 1926년 3월호 첫 면에 실린 삽화이다. 이 그림의 설명으로는 '아 보아라 저 두렵고도 무서운 毒한 술의 惡魔의 凶惡한 짓. 사람을 창에다 꿰어 메고 달아난다. 猛醒할지어다 飮酒家 諸氏여'라는 글이 제시된다.
46) 금주호의 삽화 사용은 이후 개신교 금주단체들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면려회의 선전 방식 중에서는 '市街의 중요한 도로 및 장소에 禁酒만화 수십종을 크게 그려 수십처에 세운 게시판에 일매씩 붙임'이라는 규정이 있었다. 윤은순, 앞의 글, 77면 참조.



〈그림 3〉『구세신문』 1925.3.

서는 괴물로 분한 독주(毒酒)와 구세군의 병사가 전투를 벌이는 삽화가 등장한다. 이미지 위쪽에는 '연약한 여자와 무죄한 어린아이들에게까지 해독을 끼치는 이 무서운 아귀 같은 독주를 쳐서 박멸하자.'라는 글귀가 있다. 가정을 가진 남성이 마시는 술은 개인이 아닌 가족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독주는 강력한 힘을 가진 괴물로 상징된다. 칼과 방패를 든 구세군 병사는 자신의 몸보다 훨씬 큰 괴물과 용감하게 싸우고 있다. 아귀로 명명되는 괴물은 당시 한국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형상인 것으로 보이는데 영국에서 발행하던 구세군 신문(The War Cry)에서 사용되던 삽화를 가져왔거나 혹은 이를 변형해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특히 주목할 것은 삽화의 왼편에 등장하는 성서의 구절이다. '저희 술은 뱀의 독이오. 독사의 악독이로다(신명기 32장 33절)'라는 성경 구절이 삽화의 내용을 대표한다. 이 구절의 맥락은 신을 저버린 사람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소돔의 포도나무와 고모라 밭의 소산에 관한 부분이지만, 텍스트의 배경에 관한 설명없이 독자적인 구절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는 동시에 다른 이야기가 구성되는 틀로 기능한다.[47]

이렇듯 성경 내용을 근거로 금주를 설명하는 방식은 금주호가 가졌던 또 다른 주요한 특징이었다. 이는 주로 사령관들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경의 권위와 더불어 총사령관의 권위가 더해지면서 강력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는 1924년 부임했던 폴 스트라(W. Palstra, 배일수) 총사령관의 「주(酒)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글이다.

47) 죄악에 관한 비유에는 뱀과 독이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어 얼어 죽은 뱀을 집에 가져와 돌보다가 독에 물려 죽는 것이 마치 죄악을 가까이 하는 것과 같다는 「죄악을 가까이 하지 말 것」, 『구세신문』, 1913.3 사설이 대표적이다.

〈표 1〉「주(酒)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의 주제와 해당 성경 구절

주제	해당 성경 구절
분변하라는 말씀	레위기 10장 9, 10절 / 민수기 6장 3절
거만하고 떠드는 악마	잠언 20장 1절
하나님이 저주를 가지고 다님	이사야 5장 11, 12, 22절
낭패를 끼침	이사야 24장 9절/ 누가복음 1장 15절
정신을 혼돈케 함	이사야 28장 7절
금주자는 큰사람이다	누가복음 1장 15절
신자가 금주하는 것	로마서 14장 21절
술은 마귀의 갖춘 무기다	사무엘하 11장 13절의 일부분
술은 가난하게 해주는 물건	잠언 23장 21절
술 취하는 자는 지옥에 갈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이 글에서는 술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그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들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삽화에서 등장하는 성경구절과 마찬가지로 해당 구절의 본문은 설명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금주를 해야 한다는 강력한 근거로 제시된다. 특히 마지막 부분이 흥미롭다. 술 취하는 것이 회개와 구원의 문제와 연관된 문제이며 이는 지옥에 갈 정도로 큰 죄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회개하고 자복하여 믿으면 술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며 구원의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설득하고 있다. 이 글은 이후 『신학지남』에 글이 게재되면서 다른 개신교 교파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성경을 근거로 한 후속 담론들에서 주로 사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48]

술과 관련된 또 다른 사령관의 글은 「禁酒子必有福」이 있다. 스티븐스(W.Stevens, 신태빈) 사령관은 술의 노예에서 자유의 상태가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길 뿐임을 강조하면서 예화를 사용한다. 외국인의 하인이 주인의 집에서 구세군이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했다가 술 먹는 습관이 죄라는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례를 들고 있다. 하인의 회개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많은 의미를 내포한 사건이다. 하인은 글도 몰랐으나 열심히 공부해서 글을 깨우친

48) 배일수, 「酒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구세신문금주호전재)」, 『신학지남』 제7권 3호, 1925. 7, 164-167면.

다. 하인은 이후 구세군 사관이 되고 참령이 되며, 하인의 아이들도 아버지를 본받아 사관이 된다. 술을 끊고 개신교인이 된 주인공은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것이며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자녀들의 인생까지 바뀌었다. 이는 이전과 이후가 명확하게 변화하는 이야기로 금주는 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세상으로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주제가 된다. 근심 걱정과 가난에서부터 행복과 복을 받는 변화는 오로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가능한 것이자 예수를 믿는 것은 금주를 가능하게 한다.

금주는 이렇듯 개종의 주요한 주제였기 때문에 한국인의 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사관생도였던 손응선은 "금주가"를 지었다. 그는 금주와 관련해서 자신의 개종 경험을 드러내면서 신자가 될 것을 권면하는데, '주색에 노예이던 손응선이 예수의 보혈로 다 끊어 버리고 구세군 사관학생 기쁘다 아멘'이라는 문장에 또 다른 이야기를 덧붙인다.[49] 개인이 예수를 믿는 것을 죄 많은 반도강산의 변화와 연결지어 설명하면서 개인의 금주가 결국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이 금주가가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개인의 개종이 나라의 안위와 연관된다는 생각은 이후 또 다른 금주가 등에서 공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50]

---

49) 酒 魔에精神을빼낀자들/色 慾을바리고悔改하게/에 전에지은죄산갓흐나/노 하신上帝끠自服하면/예 수씨우리를사랑하사/든 든한軍兵을삼으리라/孫 孫이전하세救主恩功/應 答해주시리上帝시라/善 惡에싸호난軍兵들아/이 世上酒魔를진멸하세/예 수씨우리를도아주사/수 업는惡魔도이긔리라/義 로운싸홈에죽는것은/寶 物에榮光이되리로라/血 火의참精神을가져요/로 (擄)隷된民族누군가/다 대한무엇을願하시면/끈 어요毒酒를똑끈어요/어 이를하랴오醉한兄님/바 드신新聞은禁酒號요/리 별을하시오더러운술/고 통에死亡이이것이오/救 하세罪만흔半島江山/世 界上萬國에優等가게/軍 隊의勇氣를훨신내어/士 農과工商을改革하고/官 署와庶民이평화되야/學 할바하나님계명이라/生 命의좁은길찻난자는/깃 븜의永生을엇으리라/부 활의時機가갓가왓소/다 와서救援을밧으시오/아 서요滅亡의무서운술/멘 드리시지도마르시오

50) 오병수, 「내 믿음의 요람, 구세군 예배당」, 『새가정』, 새가정사, 1987.12, 152면. 오병수가 기억하고 있는 이 구세군가는 임세배가 작사한 「금주가」로서 1931년 『신정찬송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수강산 내동포여 술을입에 대지마라 건강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늘두렵다 2. 패가망신하는 술은 빚도내어 마시면서 자녀교육 위하여는 일전한푼 안쓰려네 3. 전국술값 다합하여 곳곳마다 학교세워 자녀수양 늘시키면 동서문명 잘빛내리 4. 천부주신 네재능과 부모님께 받은귀체 술의독기 받지말고 국가위해 일할지라 후렴. 아, 마시지 말자 그 술 아, 보지도 말라 그 술 우리나라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느니라.

3.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구세군과 금주에 관해서 살펴보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했다. 구세군이 영국에서 출현한 단체라는 점에 주목하여 우선 구세군 출현 당시 영국의 상황을 확인했다. 대장윌리엄 부스와 캐서린 부스가 바라본 이 세상은 죄악과 악마의 권세가 가득한 어두움의 공간이자 악마의 권세가 충만한 곳이었다.[51] 이 세상을 구하는 구세군은 결국 악과 싸움을 하는 군대이며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어야 하는 임무를 가졌다.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곧 악의 세계로부터의 구조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구원과 사회의 구원은 서로 맞닿아 있는 문제가 된다. 이러한 세계관을 가진 구세군에게 술은 절대 악의 상징인 동시에 결과였다. 구세군은 엄격한 규율을 가진 군대식 조직 체계를 지녔고 당시 한국에서도 영국인 총사령관 중심이었기에 이러한 아이디어가 적극적으로 구현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먼저 진출해 있던 개신교 교파들과 한국인들은 구세군에게 호의적이었으며 그들의 세계관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주요한 배경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착 초기부터 금주에 엄격했던 구세군은 1920-30년대 사회적・종교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전개된 개신교 금주운동에서 가장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다. 그들의 악대를 앞세운 가로전도, 가로시위 등은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되었고 이는 당시 개신교 금주운동 단체의 활동에도 영향을 주었다. 3월마다 발행한 특집 금주호에는 다양한 삽화와 성경구절을 근거로 한 금주 담론이 펼쳐졌고 구세군이 가졌던 세계관은 일반인과 개신교인들이 공유하면서 당시의 금주 문화에 주요한 배경을 제공했다. 여전히 낯선 조직과 체계를 가진 구세군이지만 금주운동에 있어서는 가장 주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구세군의 사회봉사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자선과 봉사의 차원이 강조되지만 그 내면에는 실제로 악을 무찌르는 군대라는 정체성이 강력하게 자리하고 있으며 그 강력한 종교적 지향이 적극적인 실천을 이끈다는 점은 추후의 연구들에서 계속 확인하고자 한다.

51) 「대장의 편지」, 『구세신문』, 1911.9.

▮ 참고문헌

『구세신문』, 『대한그리스도인회보』, 『대한매일신보』, 『대한자강회월보』, 『별건곤』, 『새가정』.

강돈구, 「구세군의 역사와 정체성」, 『종교연구』 제57집, 한국종교학회, 2009, 1-29면.
강종권, 『초기 한국구세군 선교와 사역』, 구세군출판부, 2018.
김준철, 「구세군의 신학사상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 제30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8, 3-22면.
루스 보딘 지음, 한동수 옮김, 『프란시스 윌라드』, JCR, 2008.
류대영, 『한국 기독교의 역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8.
리처드 D. 앨틱 지음, 이미애 옮김, 『빅토리아 시대의 사람들과 사상』, 아카넷, 2011.
백종구, 「한국 개신교 절제운동의 기원과 전개—금주운동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27집, 한국기독교학회, 2003, 379-406면.
송기호, 「19세기 영국의 금주운동과 해밀턴의 금주 시」, 『영어영문학』 제16권 2호, 미래영어영문학회, 2011, 1-24면.
양윤석, 「한국 구세군의 사회구원활동 및 신학 : 일제시대를 중심으로」, 계명대 박사학위논문, 2016.
윤은순, 「1920·30년대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2008.
이유나, 『한국 초기 기독교의 죄 이해: 1884-1910』, 한들출판사, 2007.
장금현,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 연구: 1884-1939년을 중심으로」, 서울신학대 박사학위논문, 2004.
장형일, 『한국구세군사』, 구세군대한본영, 1975.

Altick, Richard D., *Victorian People and Ideas: A Companion for the Modern Reader of Victorian Literature*, W. W. Norton & Company, Inc, 1973.
Bale, Malcolm., *Marching On! The Salvation Army—Its Origin and Development*, The General of The Salvation Army, 1990.
Blocker, Jack S. eds., *Alcohol and temperance in modern history: an international encyclopedia*, Santa Barbara: ABC-CLIO, Inc, 2003.
Bodin, Ruth, *Francis Willard*,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6.
Booth, Catherine Mumford, *Papers in Practical Religion*, London: S. W. Patridge and Co., 1879.
Booth, William, *Purity of Heart : Letters to Salvation Army Officers*, London: Salvation Army Book-Room, 1902.
Harvey, Graham, "Respectfully eating or not eating : Putting food at the centre of Religious Studies", *Scripta Instituti Donneriani Aboensis*, Vol.26, 2015, pp.32-46.
Shinman, Lilian L., *Crusade against Drink in Victorian England*,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8.

Vitorian Web, http://www.victorianweb.org(2019.12.31 검색).
「Victorian Women Writers Project」, Indiana University, http://purl.dlib.indiana.edu/iudl/vwwp/VAB7134(2019.12.31 검색).

【Abstract】

The war against sins
—focusing on the early korean salvation army—

Lee, You-Na*

This paper aims to confirm the activities of the early Korean Salvation Army by analyzing the contents of Salvation Newspaper. Unlike the tendency of previous studies to identify the Salvation Army in the flow of temperance movement in Korean Protestantism, the discussion is focused on the Salvation Army's History. First, we look at the situation in England at the time of the emergence of the Salvation Army and look at why abstinence became a major discipline. In order to understand the activities of the Salvation Army who settled in Korea, it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Geumjuho, especially among the discourses of the Salvation Newspaper published in 1909. Through symbolic illustrations, major Bible verses, and Geumju Song, the Salvation Army showed strong religious characters. It can also be confirmed that this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temperance movement at that time.

Keywords: Salvation Army, Abstinence, Salvation Newspaper, Temperance, Norm, Military, No Smoking.

접수일: 2019.12.31. ‖ 심사일: 2020.01.13. ‖ 게재확정일: 2020.02.17.

* Lector, Global Leadership School, Handong Univ.